

韓國 開創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김 현 경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본 연구는 19세기 이후부터 출현하여 변화하는 근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韓國에서 開創된 檀君系, 水雲系, 甌山系, 奉南系, 覺世道系, 巫教系 등 7개 新興宗教 45개 教團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현행 의례복식을 실태 조사하여 신흥종교 사상이 어떻게 의례복식에 반영되며 그 특징은 무엇 인지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개창 신흥종교들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教理나 思想 등을 의례복식에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복식의 형태나 명칭들을 변형, 또는 혼용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 개창 신흥종교의 의례복식에는 공통적으로 時代思潮的인 性向, 民族的인 性格, 教意的인 性格, 祖上崇拜思想이 표현되고 있다.

셋째, 의례복식의 構造的인 特徵을 象徵性, 名稱, 着裝 類型, 形態, 色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의례복식의 象徵性은 신흥종교의 중요한 思想的인 特徵이 의례복식에 反影되어 名稱, 形態, 色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례복식의 名稱은 각 교단에서 의복은 도복(도의), 법복(법의), 예복으로, 관모는 통천관, 연화관(연관), 예모, 칠층관 등 佛·儒·道教的인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의례복식의 着裝 類型은 남자는 한복의 저고리와 바지 위에 포와 관모를 착용한 유형과 양복을 착용한 유형이 많으며, 여자는 한복 저고리 치마와 양장을 착용한 유형이 많다. 이는 우리 전통복식을 의례복식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점차 의례복 제정이 약화되거나 간소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의례복식의 形態는 현재의 두루마기인 窄袖周衣型直領袍가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 여자는 大衣型直領袍를 많이 착용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포의 형태가 남녀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포의 형태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남·녀 平等思想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례복식의 色相은 의복과 관모에서 색상을 사용하여 陰陽五行思想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외 계절과 방위에 따라 의복의 색상을 달리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思想, 教理에 맞추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의례복식은 儀禮, 儀式, 치성 등으로 불리우는 각 종교 행사에서 착용됨으로써 행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또한 다른 교단들과 구분하기도 하며 행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의식에 몰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韓國 開創 新興宗教의 의례복식은 共通的인 思想, 構造的인 면에서 象徵性, 名稱, 着裝 類型, 形態, 色相 등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과 기성 종교의 복식을 繼承하고 차용함으로써 宗教的 思想을 象徵化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